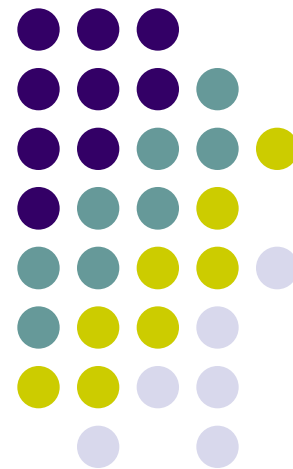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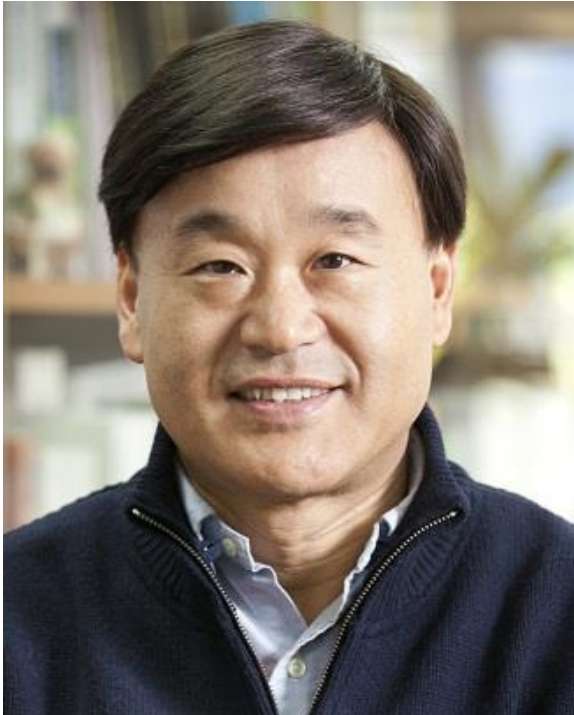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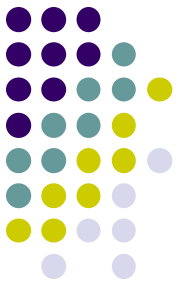
# 사회심리학의 소개

## (Introducing Social Psyc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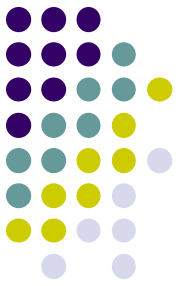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윤인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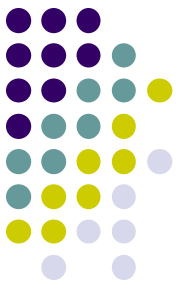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85)
-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석사 및 박사 (1991)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아시아인 아메리칸 학과 조교수 (1992-1995)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BK21 갈등사회 교육연구단 사업단장
-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재외한인학회 회장
-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 전공분야: 사회심리학, 국제이주, 소수자, 다문화주의, 사회정책



# 사회심리학적 현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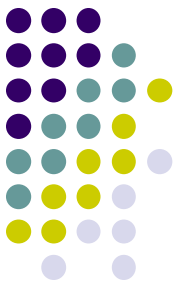
- 동기화(synchronization)
- 세대(generation)
- 불안감과 민주주의로부터의 도피



# 동기화(synchro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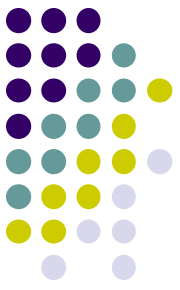
- 공학 개념 :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 일치해서 작동하도록 조정하는 것 (예 : 데스크 탑 컴퓨터와 PDA 또는 스마트폰의 주소록과 일정을 일치하게 하는 것)
- 사회심리학적 개념 : 두 명 이상의 개인의 감정, 태도, 취향, 습관, 행동이 일치되는 과정 (예 : 부부는 닮는다)





# 동기화의 이유, 결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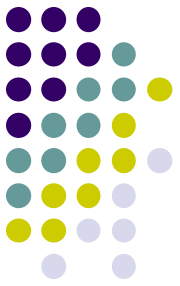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 이유 : 원만한 관계 유지의 필요
- 결과 : 대인관계의 질과 지속성에 영향
- 차이 : 동기화의 압력 정도 -> 동기화 수준의 차이 (예 : 부부 동기화 > 부모-자녀 동기화, 동질적 조직 내 동기화 > 이질적 조직 내 동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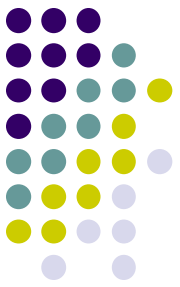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세대

- 세대(**generation**) :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경험과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의 집합(a group of people who are of a similar age, especially when they are considered as having the same experiences or attitudes)
- 코호트(**cohort**) : 특정한 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해서 공통의 통계학적 요인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합(a group of people having a statistical factor (as age or class membership) in common in a demographic study).
- 예 : 미국의 뉴딜 세대, 베이비붐 세대, 한국의 419세대, 386세대

# 정체성 형성에서의 임계기 (critical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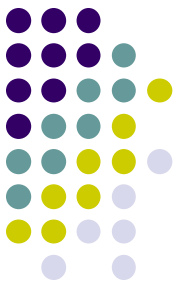
- 임계기 : 특정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 이 시기의 사건 경험이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A critical period is a limited time in which an event can occur, usually to result in some kind of transformation)



# 임계기의 연령

- 세대 효과 또는 코호트 효과가 나타나는 임계기의 연령은 대체로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초반**
-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취향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의 차이 : 연령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보수화되지만 세대 효과는 청년 때 가졌던 태도와 취향을 유지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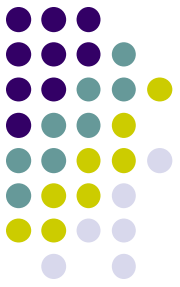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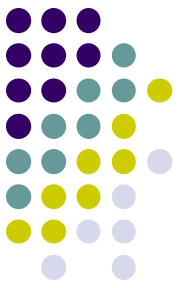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386세대의 사회심리

- **386년** 세대는 **1960**년대에 출생해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현재 연령이 **50**대인 사람들의 집합(이 용어가 만들어진 **1990**년대에는 **30**대였음)
- 이들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된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음 -> 경제적 안전 보장 이후 정치민주화에 대한 욕구
-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최소한 의식적 수준에서 동참) -> 진보적 성향 ->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한 동료들에 대한 부채의식

#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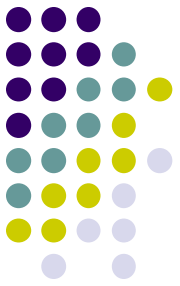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1980년대 학생운동

# 산자여 따르라!



이한열 열사 장례 행렬 (서울시청 광장, 198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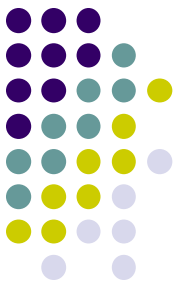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386세대, 그 빛과 그늘



이 책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대 학생들이 제출했던 '생애사적 보고서'의 아주 작은 일부를 묶은 것이다. 1980년대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때 공부했던 학생들 그리고 지금은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중간 허리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386'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글들을 골라 엮었다. 최루탄 냄새가 떠날 줄 몰랐던 암울했던 80년대의 대학 캠퍼스. 그곳에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온 386세대가 있었다. 오늘날 사회의 주류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386세대의 생애사적 보고서를 통해 80년대 시대적 아픔과 그들의 진솔한 삶의 고백을 들어본다.

1부 잠 못 이루는 대학의 밤들 (Sleepless on campus)

2부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Rise again on the field)



# 불안세대(Anxiety generation)

- 베이비붐 세대...‘불안감’이 그들을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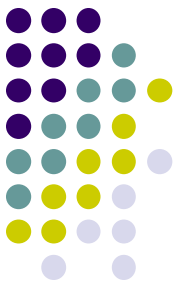
수도권 50대, 박근혜에 쏠린 이유

“경제·안보 위기감 가장 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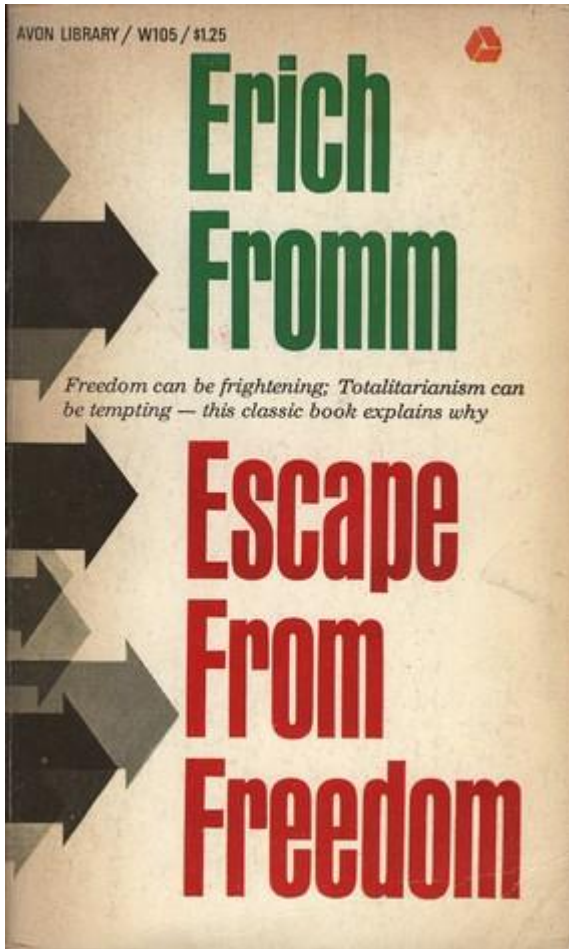
“집값 하락이 민주화보다 절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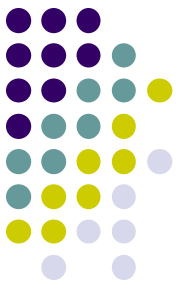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50대 62.5% 지지가 ‘일등공신’

(한겨레 2012.12.20)



#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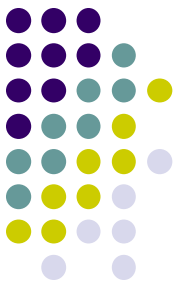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로부터의 자유 vs. …로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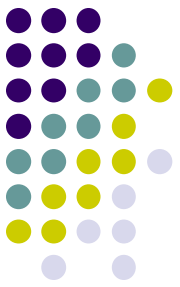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 소극적 자유
- …로의 자유(freedom to) – 적극적 자유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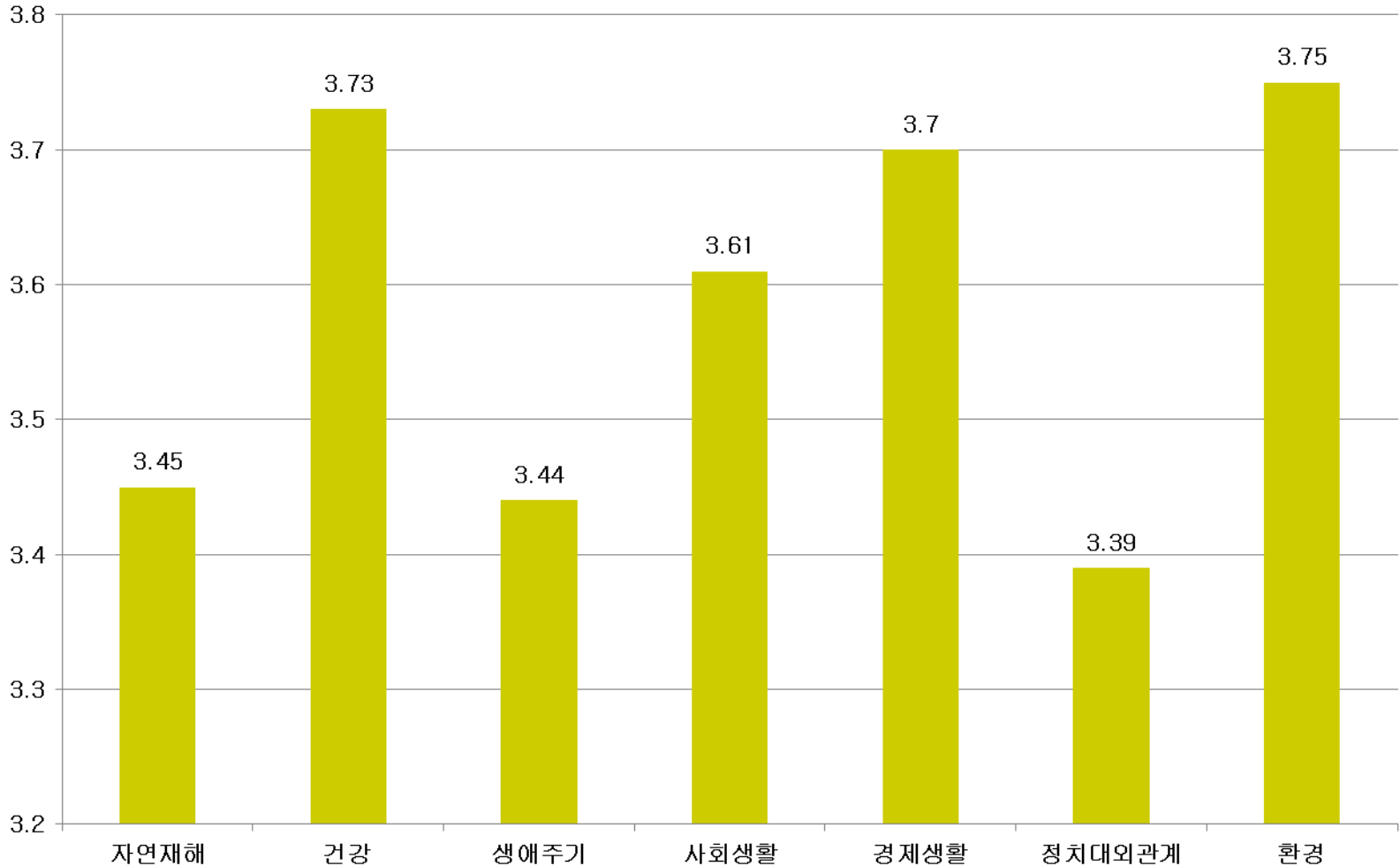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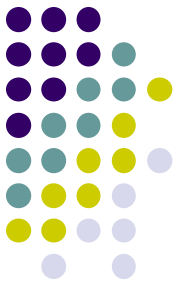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 “근대인은 전통적 권위에서 해방되어 ‘개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고립되고 무력해졌으며, 자기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외재적인 목적의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그의 자아를 위태롭게 하고, 그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위협하여 새로운 속박에 기꺼이 예속하도록 만든다. 이에 반해 적극적인 자유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생존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과도 일치한다”(pp. 224-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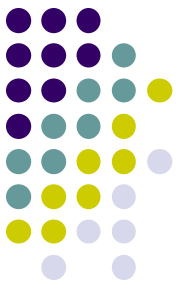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제3차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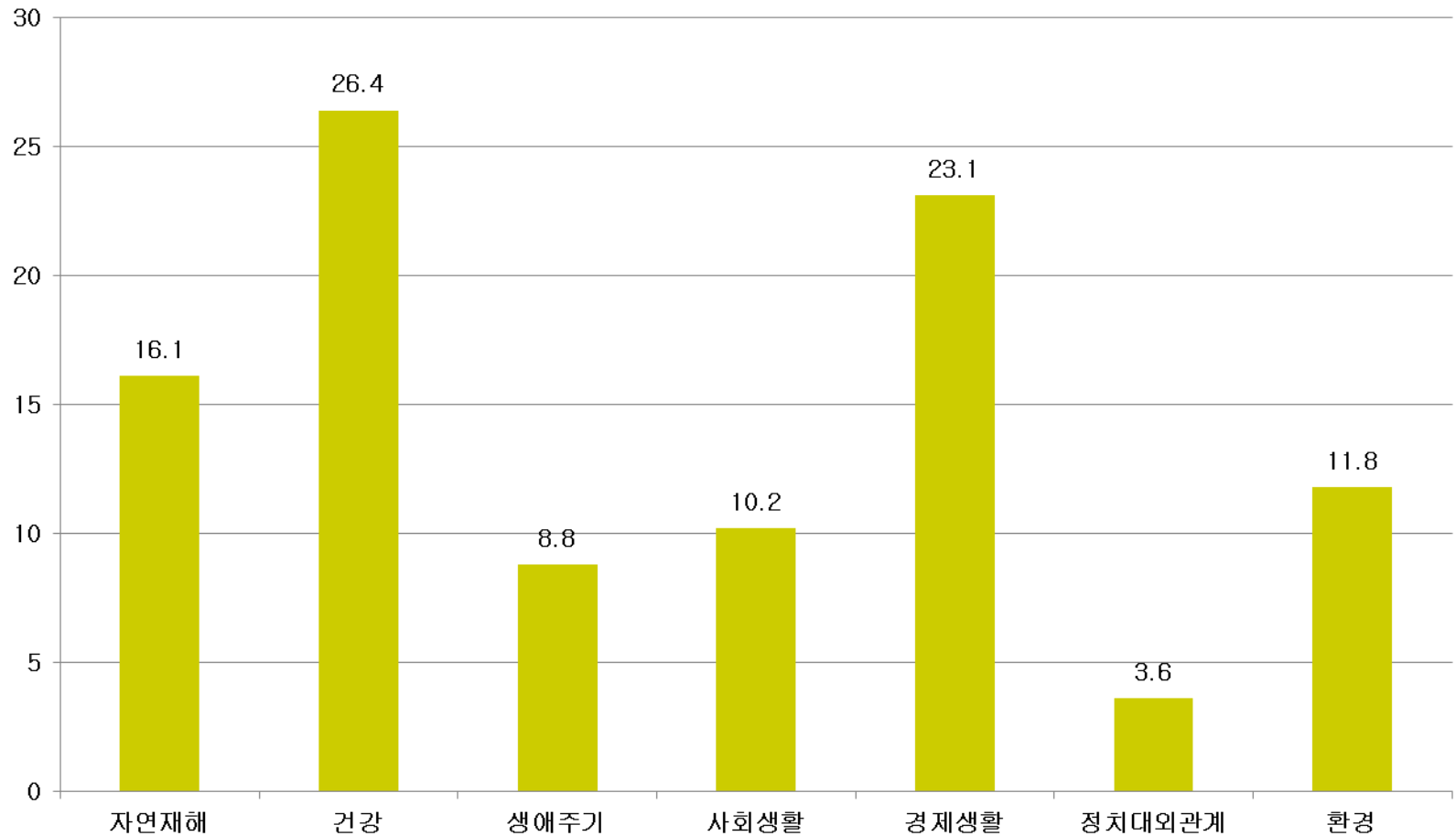
- 표본: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
- 조사 기간: 2014년 4월 8일 ~ 5월 7일
- 조사 내용: 한국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의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감 특별 모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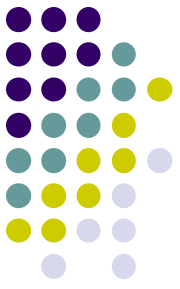
# 한국인의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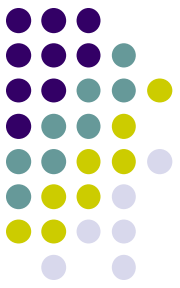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가장 불안함 위험(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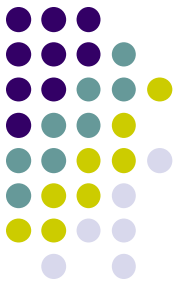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구분	동의함	동의 안함	차이	평균
1)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집단은 모래알과 같다	64.9	8.2	56.7	2.31
2) 정치적 민주주의보다 뛰어난 지도자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49.1	13.0	36.1	2.56
3)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지도자는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62.6	6.5	56.1	3.77
4) 민주주의는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24.6	35.6	-11.0	3.18
5)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41.9	16.0	25.9	2.72
6)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일부 희생해도 좋다	27.4	29.2	-1.8	3.06
7)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정치 체계보다 더 낫다	48.7	5.9	42.8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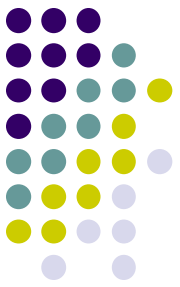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탈권위주의

요인 1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요인 2 (탈권위주의)
4) 민주주의는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1)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집단은 모래알과 같다
5)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2) 정치적 민주주의보다 뛰어난 지도자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일부 희생해도 좋다	
세 변수들의 크론바하 알파 : 0.685	두 변수들의 크론바하 알파 : 0.626
평균값: 2.98	평균값: 2.44



# 불안감 \* 민주주의 신념 상관관계

	자연 재해	건강	생애 주기	사회 생활	경제 생활	정채대 외관계	환경	총체적 불안
민주주의 신념	-.156	-.065	-.051	-.085	-.051	-.166	-.113	-.019
탈권위 주의	-.066	-.046	-.042	-.055	-.034	-.038	-.057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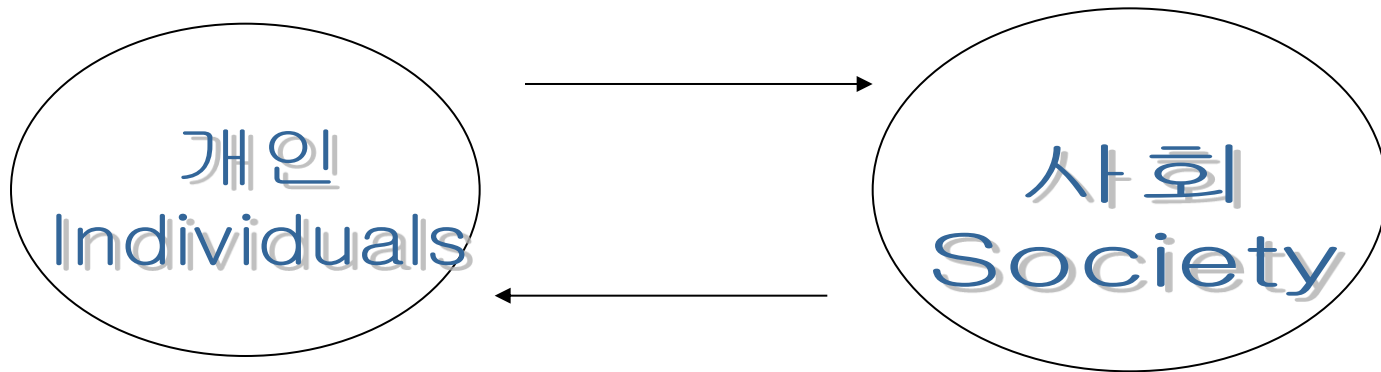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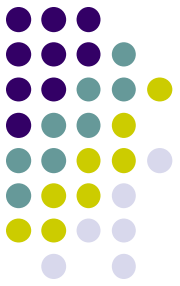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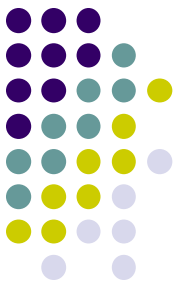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특징

- 동기화, 세대, 불안감의 예를 통해서 살펴 본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특징은
  1. 개인의 행동, 동기, 인식에 대한 연구
  2.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3.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관계에 주목
  4. 문화적 차이에 주목



#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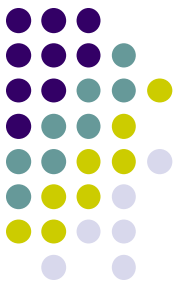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사회심리학의 정의

**Dorwin Cartwright** : 사회가 어떻게 개인의 인식, 동기, 발달,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는 다시 개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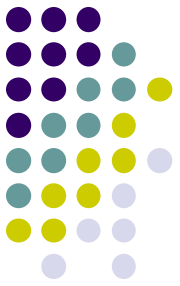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the branch of the social sciences which attempts to explain how society influences the cognition, motivation, development, and behavior of individuals and, in turn, is influenced by them)**



# 사회심리학의 기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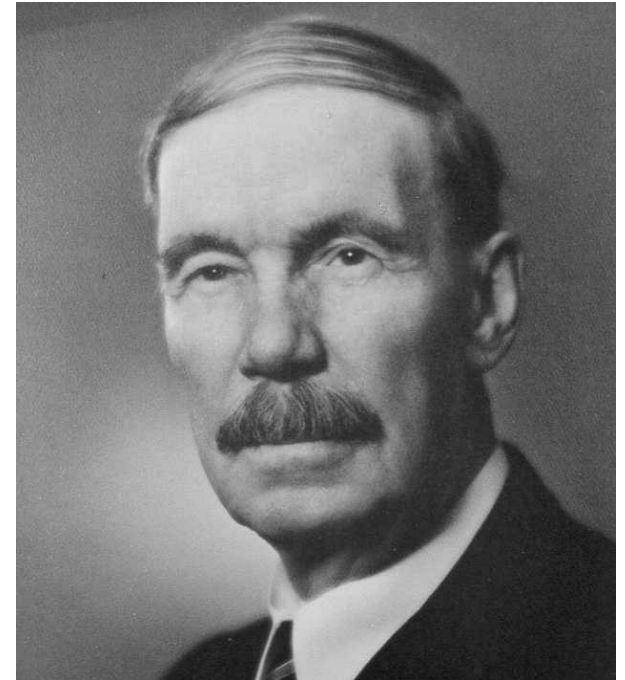
- **William McDougall** : 마음(정신)의 선천적 토대에 초점. 본능(**instinct**) 개념의 중요성
- 인간을 특징 짓는 사고와 행동의 선천적 경향
- 예 : 왜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은 좋아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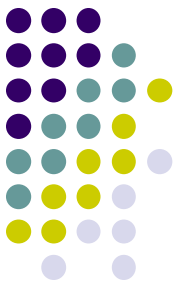




## 사회심리학의 기원 2

- **Edward A. Ross** : 사회적 힘 (social forces)에 초점
- 특정한 사회심리학적 현상들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
- 예 : 유행 (유행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은 개인 마음의 본성과 구조로 설명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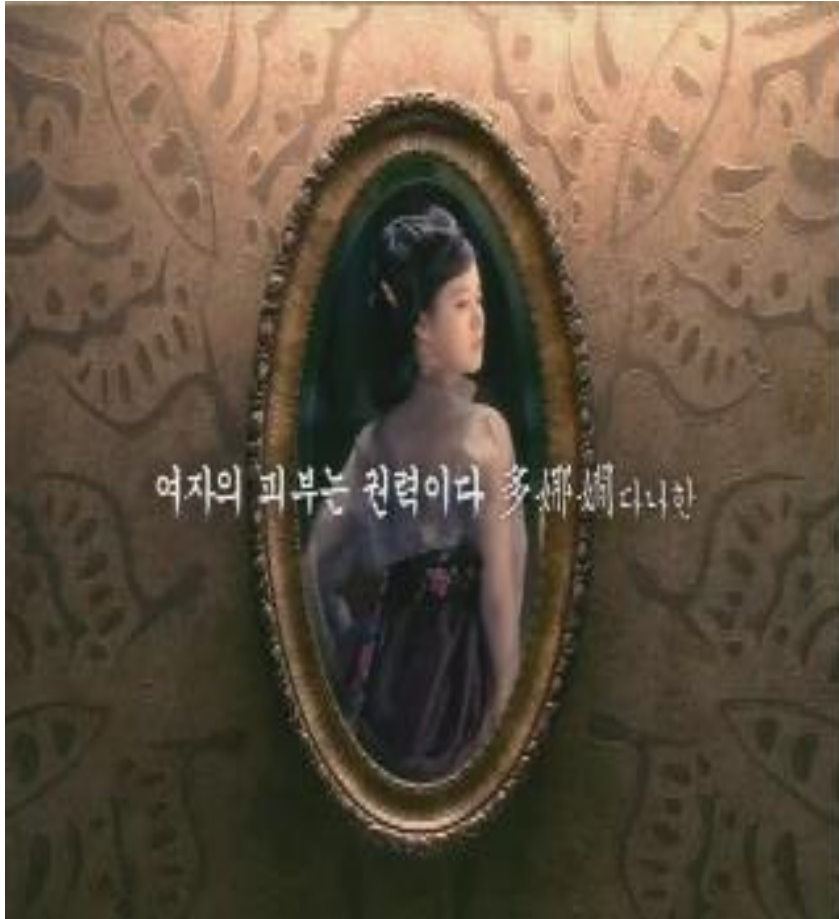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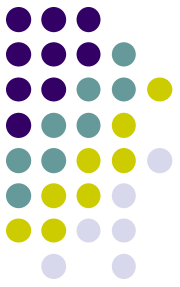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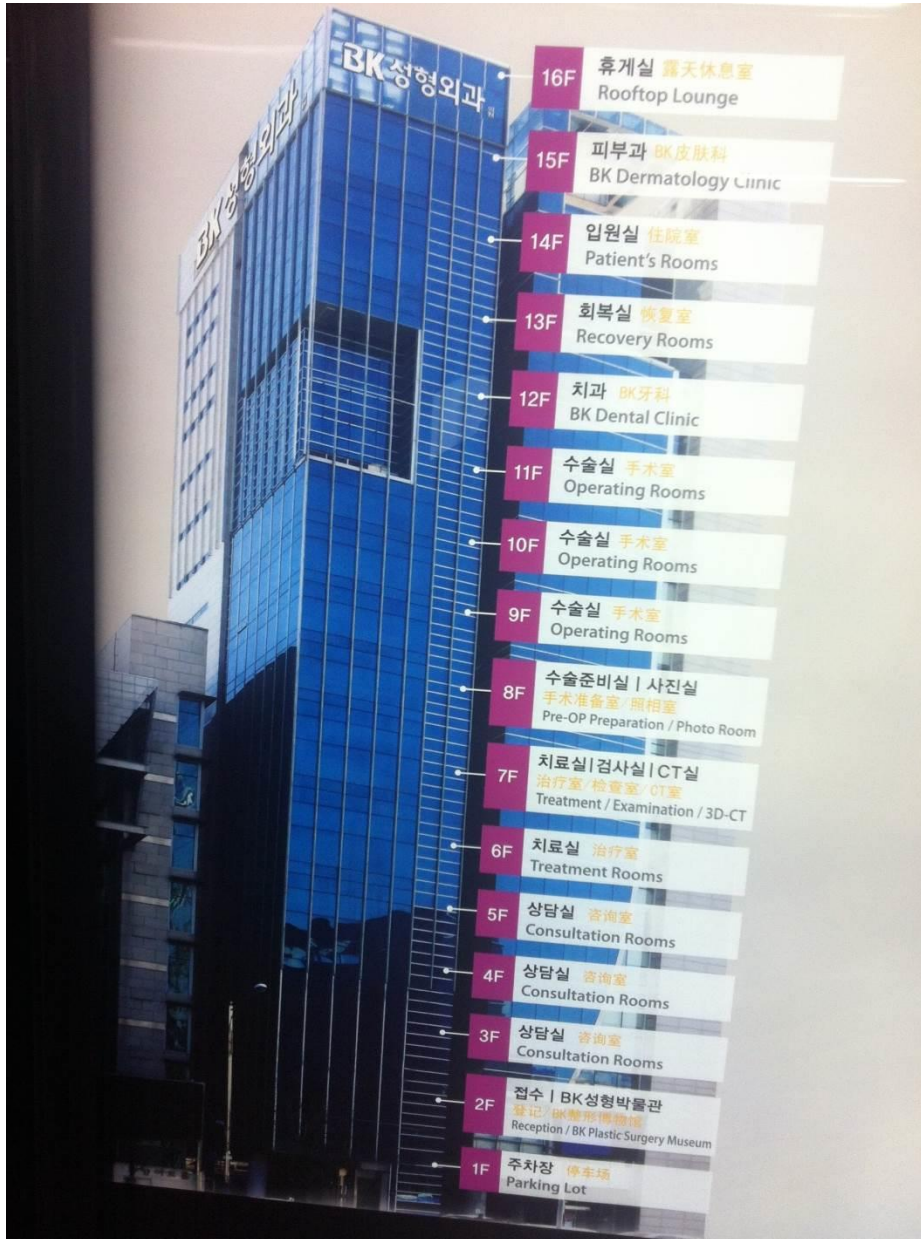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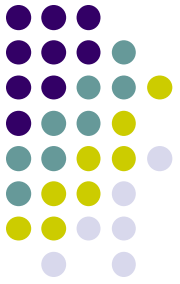


# 사회학적 사실(sociological fact)

- 사람들 간의 교류가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개인 자체를 연구해서는 설명될 수 없음
- 예 : 한국의 외모주의(**lookism**)
  - 신언서판(身言書判), 체면의 전통
  - 가부장적 사회문화에서 여성의 상품화
  - 성형산업의 발달

# 소망화장품 ‘왕후’— 여자에게 피부는 ‘권력’ ?





## 성형 천국 (Cosmetic Parad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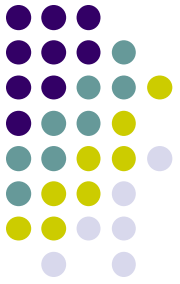
한국에서 외모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고비용과 고위험의 성형수술을 감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성형에 대한 폭발적 욕구는 BK성형외과와 같은 종합 성형수술 병원을 낳았다.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병원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그 다음 층에서 접수하고, 계속 한 층씩 올라가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하고 입원하는 순서를 밟는다. 한국의 성형문화는 남들과 달라지기보다 오히려 닮아지려는 집단 규범에의 동조로 볼 수 있다.

BK성형외과  
강남구 논현동 신사역 2번 출구

<http://www.bkhospital.com/intro.asp>



# 과천 경마공원



## 경마 공원 (Racing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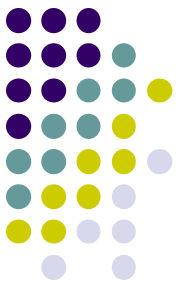
한국마사회는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경마장이라는 이름을 경마공원으로 바꾸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연인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교실도 운영하고 공원 내 정원도 가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 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경주를 즐기기보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열심히 경마 정보지를 읽고 궁리하면서 최상의 배팅을 기획한다. 경마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인과 경마를 건전한 여가 행위로 보이게 하려는 한국마사회 간의 부동 조화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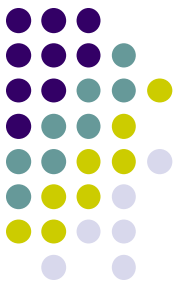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심리학과 사회학의 차이 1

-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심리학적 과정 자체이지 그것의 사회적 배경이 아님
-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은 개인을 분석의 주요 단위로 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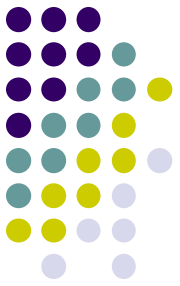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 심리학과 사회학의 차이 2

- 사회학자들은 개인보다 큰 단위의 사람들의 집합, 예를 들어 집단, 지역공동체, 사회계급, 또는 전체 사회에 관심을 가짐
-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은 사람들의 연합체 (**human associations**)에 초점을 두고 사회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음 (예 : **Dorwin Cartwright**의 집단역학(**Group Dynamics**))



# 심리학의 주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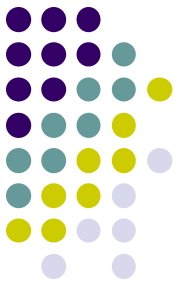
- 동조(**conformity**), 대인매력(**interpersonal attraction**), 귀인(**attribution of causality**), 공격(**aggression**), 이타적 행동(**altruistic behavior**), 태도(**attitudes**)



# 동조(Conform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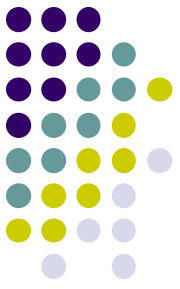
- 동조에 관한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집단 압력으로 인해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바꾸는가를 조사함

# 솔로몬 애쉬 (Solomon A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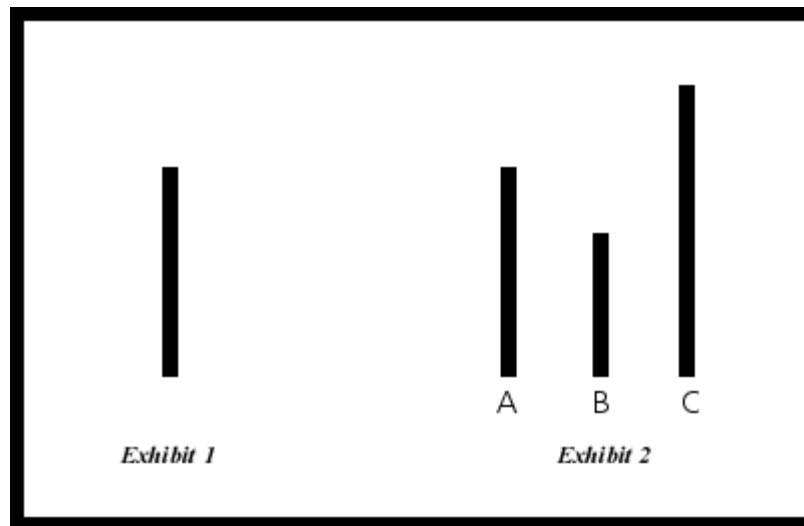
## ***Solomon E. Asch 1907 -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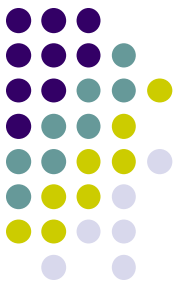
- Solomon E. Asch was a pioneer of social psychology. Born in Warsaw, Poland, on September 14, 1907,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20 and received a Ph.D. from Columbia University in 1932. His mentor there, Max Wertheimer, was an important early influence as Asch explored gestalt, relation-oriented approaches to perception, association, learning, thinking, and metaphor. His principal faculty appointment was at Swarthmore College, where he spent 19 years working with a group of psychologists that included Wolfgang Kohler.



# 애쉬 실험

- 솔로몬 애쉬는 실험실에서 피험자가 아래 서로 다른 길이의 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심험모의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했다. (In the classic experiments of Solomon Asche, subjects were induced to misjudge the relative length of lines (a task that should be a matter of objective judgment) by pressures to agree with the erroneous judgments of confederates of the experim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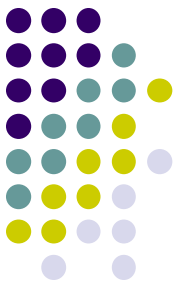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심리학적 사회심리학

- **Gordon Allport** : 사회심리학은 개인들의 생각, 감정, 행위가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타인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 받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시도”(an attempt to understand and explain how the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s of individuals are influenced by the actual, imagined, or implied presence of others)
-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영향을 강조.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자의 과제는 사회적 자극의 함수로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





# 사회학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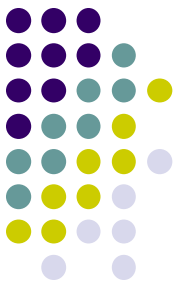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사회학자들은 심리학자들보다 더욱 광범위한 사회현상에 관심 : 역할(**roles**), 사회화(**socialization**), 정의(**justice**), 사회운동(**social movements**),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 일탈(**deviance**), 사회통제(**social control**), 자기(**self**), 정체성(**identity**), 건강, 직업, 사회이동(**health, work, and social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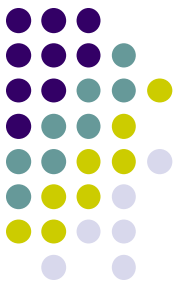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사회학의 목표

-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세계(**social world**) 자체에 대해 초점을 둠. 사회구조, 문화, 사회적 역할, 집단, 조직, 집합행동이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것들 자체를 실체로 이해
- 그들의 목표는 왜 개인들이 특정하게 행동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직적인 사회생활 (**organized social life**)가 가능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시기적으로 변화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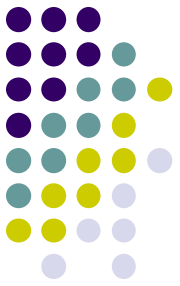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 사회화(Socialization)

- 사회학자들은 개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대신 사회화의 내용, 사회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가족, 동료, 학교 등), 그리고 개인의 상이한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사회화의 과정에 관심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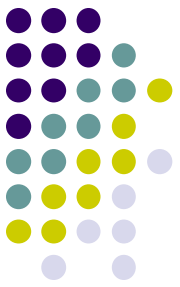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사회학적 사회심리학

- ① 개인들이 사회집단에 참여하여 생기는 사회적 경험
- ② 타자들과의 상호작용
- ③ 사회적 경험과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문화적 환경의 영향
- ④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현되는 사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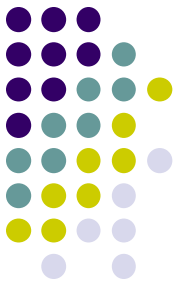
#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의 두 가지 관점

- Symbolic interactionism(상징적 상호작용론)
- Personality and society perspective(성격과 사회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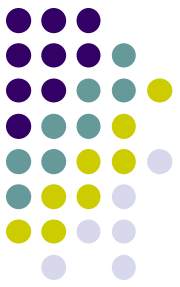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분석 단위

- 사회학자들은 개인과 개인행동보다 집단과 집단행동을 강조.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학자들의 주된 연구 주제
- 또한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그리고 다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상호 영향에 관심을 가짐
-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사회학의 주된 과제로 인식(자기, 사회화, 소집단, 언어, 역할 등)
- 예 : 1.5세 개념(1.5 generation)
  - 1세와 2세의 교량세대
  -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 정체성의 혼란 또는 하이브리드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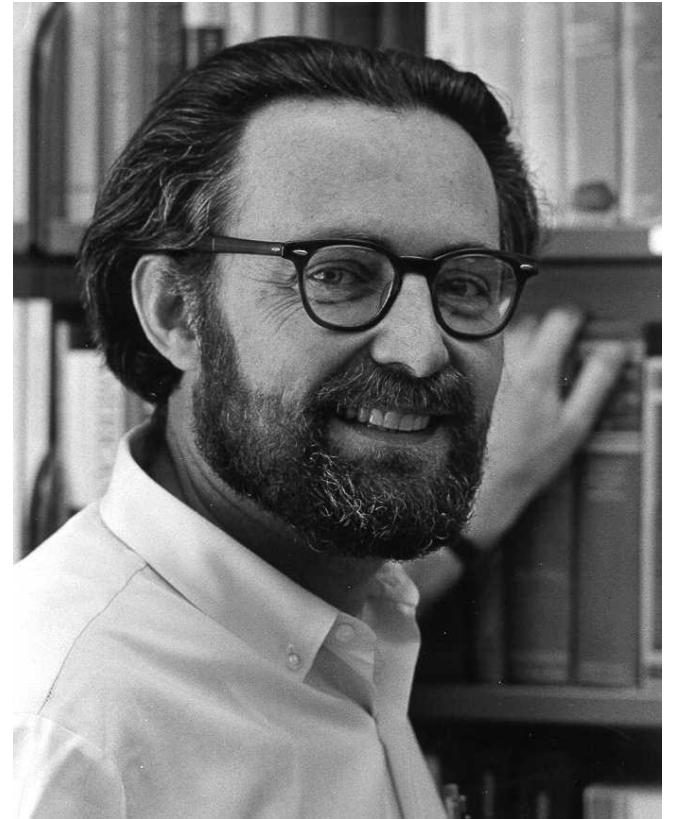
## 성격과 사회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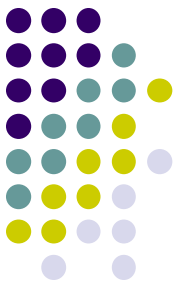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성격과 사회 관점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의 특성을 사회심리학의 주된 연구과제로 인식
- 예 : 사회계층 별 가치체계 비교(**Different value systems of different social classes**)



# 멜빈 콘(Melvin Kohn)

- 멜빈 콘과 그의 연구동료들은 사회계층이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Melvin Kohn and his colleagues'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arental values and behavior)**
- 상류층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주도성과 내적동기를 중요하게 여김. 반면 하류층 부모들은 동조, 순종, 외모를 중시 여김





#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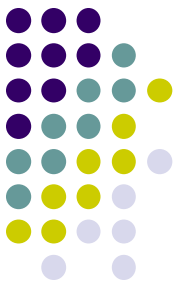
-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맥락을 벗어나서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자연적인 실제 생활 배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
- 연구대상인 개인의 세계를 포착하기 위해 연구방법은 주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





# 성격과 사회 관점의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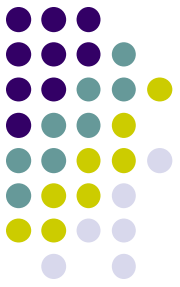
- 성격과 사회 관점을 가진 사회학자들은 사회심리학적 개념들은 정량화되어야 하고 엄밀한 경험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척도와 정량적인 연구방법을 선호



#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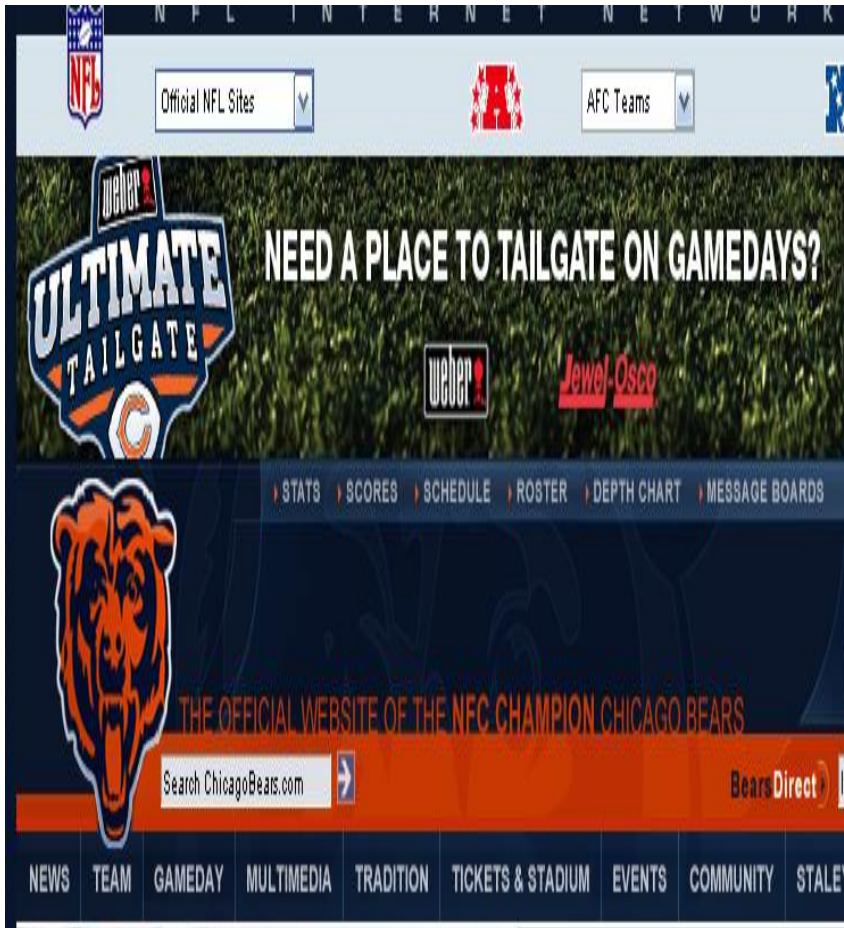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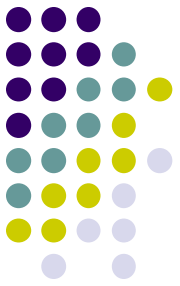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생각.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됨.
- 예 : 자기가 사는 동네의 인지지도(the meaning of hometown cognitiv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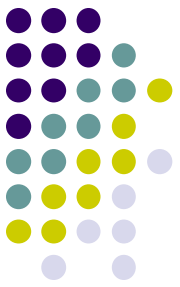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예 1: 낙태의 의미를 조작하기 (Manipulating the meaning of abortion)



- 낙태와 연관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하기 위해 LA에 위치한 낙태시술소는 시설, 직원, 절차를 가능한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함
- 시술소의 조명은 매우 밝고, 실내장식을 고급스럽게 꾸며짐. 직원들은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절차(**procedure**)라는 용어를 사용함.
- 이렇게 함으로써 시술소는 낙태는 죄책감 없이 기술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수술의 일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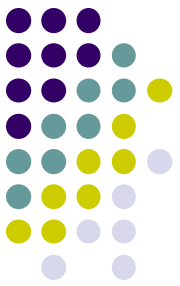
# 예 2: I was a Chicago Bears fan. But why I couldn't become a LA Rams fan?





# 홈팀에 대한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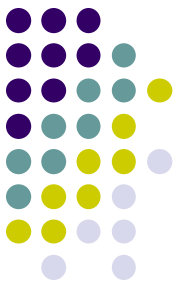
- 특정한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정서적 애착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현상
- 집단 내에서의 사회화는 상이한 집단문화와 성격을 형성함(예 : 삼성맨 vs. 현대맨, 고대생, 연대생, 서울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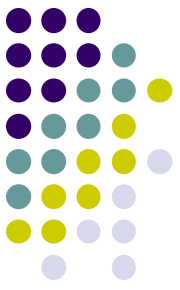
## 성격과 사회 관점

- 성격과 사회 관점을 취하는 사회학자들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지위가 그의 특성, 태도,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거시적 사건(조직과 사회에서 발생하는)과 미시적 사건(개인과 소집단에서 발생하는) 간의 관계를 연구

## 예 : 아내의 취업이 남편과 아내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Ronald Kessler and James McRae'** : 아내의 취업지위와 아내/남편의 정신건강
- 취업한 아내는 미취업한 아내보다 정신건강이 좋음. 취업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남편은 미취업한 아내를 가진 남편보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
- 취업한 아내의 수입이 낮을 경우 남편의 정신건강은 가장 좋지 않음. 아내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줌. 하지만 아내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남편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혜택이 없음



#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의 분석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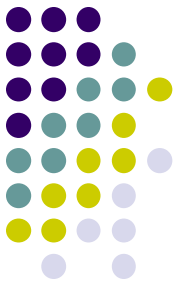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 **PSP**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자극을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둠.
- 대표적인 연구주제들은 태도형성과 변화, 인종 편견, 공격, 동조





#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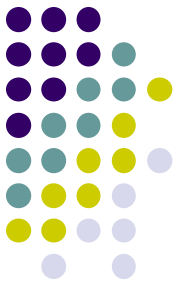
-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복잡성이 단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
- 실험실과 같은 단순화된 사회적 상황 내에서 인간의 행위를 연구



# 이론적 관점

-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 교환이론(**exchange theory**)
- 역할이론(**role theory**)
-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 사회학적 및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의 통합



1. 두 가지 관점은 동일한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
2. 두 가지 관점은 궁극적으로 수렴됨
3. 두 가지 관점은 공통적으로 사회심리학이 개인이 구성하는 주관적 세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인식. 환경이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 개인들이 인식하는 것에 의해 구성된다고 생각
4. 미국의 사회학자 **W.I. Thomas** : 누군가 상황이 실제라고 정의하면 그 결과로서 상황은 실체가 된다(“**If men define situations as real, they are real in their consequences**”)